

시간안내

간호대 교수+네 자녀의 엄마 이야기 '극한직업'... 이정열 명예교수 저



간호대학 교수로서의 삶과 네 자녀를 키운 엄마로서의 삶의 소중함과 추억을 담은 에세이 '극한직업'이 발간됐다.

'10년의 유학생 생활 동안 지낸 가족 이야기'에서는 네 자녀를 낳고 키우며,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미국에서의 경험과 일화들을 다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가족 이야기'에서는 귀국 후 에피소드로 구성했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키고, 6형제의 만머느리리 지낸 세월을 담았다.

'교수 시절에 한 흥미로운 연구들'에서는 플브라이트 장학재단에서 진행한 'New Century Scholar's Fellowship'에 선정됐던 이야기와 함께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을까?' '국내 호스피스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등 5편의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정열 명예교수는 책의 서문과 후문을 통해 "네 명의 아이들은 자주 '엄마 우릴 어떻게 이렇게 키웠어?'라고 묻곤 했는데, 그 말에 답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다"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 나와 비슷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정열 명예교수는 현재 방글라데시 국립간호전문대학원 방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진숙 기자 jilee@

상처관리의 실용적 입문서

'그림으로 보는 상처관리'... 박경희 저



의료인과 간호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처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입문서 '그림으로 보는 상처관리' 2권이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2권은 기존의 내용에 육창이나 감염에 대한 개념과 용어의 변화 등을 반영했다. 상처와 관련된 해부 및 생리를 포함한 상처관리의 기본원리를 실제 저자가 경험한 증례를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 상처를 관리하는 절차에 중점을 뒀 집필했으며, 그림을 통한 사례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의료인과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은 △1장 피부 △2장 상처치유 △3장 상처시정 △4장 상처관리 △5장 드레싱 과정 △6장 괴사조직 제거 △7장 상처관리 제품 △8장 육창관리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육창과 실금관련 피부부의 관리' '육창예방' '육창치료 계획' '압력관리' 등 7개의 육창관리 알고리즘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7월 4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신문 발행인 신경림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06388

폐암 국가암검진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위암에 이어 폐암 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

(약 11만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두 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면서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 2년 연속 감소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2016년 3월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년 연속 현저히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외국인 결핵환자 중 신환자 수는 2016년 2123명, 2017년 1632명에서 2018년 1398명으로 연평균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해 결핵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잠복결핵감염률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해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탑재」안내 대한간호협회는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탑재하였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프로그램명, 이수 인정시간. Rows include '임상사례별 응급환자 간호 I', '임상사례별 응급환자 간호 II', '눈, 귀, 코의 건강문제와 간호', etc.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유해한 '담배 및 흡연 장면'

유튜브, 드라마, 웹툰 등에서 빈번하게 등장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락매체에서 담배제품이나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오락매체(미디어)에서의 담배 및 흡연 장면 등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드라마, 영화, 웹툰,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락매체 중 인기가 많은 작품·채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텔레비전 드라마 53.3%, 영화 50.4%, 웹툰 50%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비전 드라마 조사대상 15개 중 절반 이상인 8개 작품(53.3%)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연령등급별로는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한 8개 작품 모두 15세 이상 관람가로 지정돼 있어 청소년도 시청이 가능했다.

영화 조사대상 125개 작품 중 63개 작품(50.4%)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영화등급별로는 아동·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전체관람가 영화의 5.6%, 12세 관람가 영화의 34.9%, 15세 관람가 영화의 68.6%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웹툰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42개 작품 1537편을 조사했다.

(50%)의 145편(9.4%)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작품은 연령제한이 없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작품이었고, 특정 담배상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담배제품을 직접 노출한 경우도 7편 있었다.

유튜브는 담배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11개 채널의 1612개 영상을 모두 조사했다. 72.7%(1172개) 영상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했고, 이 중 86.0%(1008개) 영상에선 유튜브가 직접 흡연하고 있었다.

흡연 장면이 있는 영상의 99.7%(1168개)가 별도의 연령제한 조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 이용가였다. 또한 흡연 장면이 있는 영상 중에는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영상, 신분증이 없을 때 담배를 구매하는 요령을 안내한 영상 등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오락매체를 통해 담배 및 흡연 장면이 지속적으로 청소년에게 노출되면 청소년의 흡연시도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흡연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향후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오락매체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해 사회적 자정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다문화가족 '아플 때 도움 요청할 사람 없다' 38%

10명 중 6명 10년 이상 거주

다문화가족 중 10년 이상 거주자가 2009년 15.6%에서 2018년 60.6%로 증가했다. 장기 거주로 한국생활 적응력은 높아졌지만,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다문화가족구는 30만6995가구로 2015년 27만8036가구에서 10.4% 증가했다. 결혼이민자 가구 85.7%(26만2969가구), 기타귀화자가구 14.3%(4만4026가구)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2.92명, 평균 자녀수는 0.95명이다. 10년 이상 거주자는 60.6%로 2009년 15.6%, 2012년 36.1%, 2015년 47.9% 대비 증가해 장기 정착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6.4%(여성 62.5%, 남성 85.3%)로 2015년에 비해 2.5%p 증가했다. 월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6.1%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 22.4%, 300~400만원 미만 2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 적응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한국어능력이 5점 만점에

3.89점으로 2015년 3.81점 보다 높아졌다.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30.9%로 2015년 40.7%에 대비해 감소했다.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29.9%로 2015년 25.7%보다 4.2%p 증가했다.

반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거나 의논할 사람이 한국에 없다는 비율이 2015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취미 생활을 같이 할 사람(40.7%)', '몸 아플 때 도움 요청할 사람(38.5%)', '자녀 교육 관련 의논할 사람(33.9%)',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을 의논할 사람(32.7%)'이 없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관련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비율은 29.0%로 2015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 경향을 반영해 관련 정책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숙 기자 jilee@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서울) 2019학년도 2학기 간호학 학사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대상: 3년제 간호학과 전문학사 이상 및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모집기간: 2019.06.03(월) ~ 08.16(금). 제출서류: 간호사 면허증 사본.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입학문의: 02-820-6155.

보건임용 완벽대비는 박문각! 보건교사를 위한 새로운 결음! 보건교사 이희정, 오상준. 2020학년도 보건교사 임용 대비 교육학 논술 6인 6색. 2019년 하반기 패키지, 7~8월 문제풀이반, 다양한 혜택 제공.

고려수지침강. 저자 유태우 / 4x6배판 / 508페이지 / 정가 80,000원(특가 60,000원). 고려수지침 발견 40주년 기념 특가 실시. 안전하게 질병을 낮게 하는 방법입니다. 노인성 질병 관리에 특히 우수합니다.